

# 고구려 별칭, 황룡(黃龍)에 대한 검토

김진한

한국교통대학교 강사, 한국고대사 전공

historian77@hanmail.net

I. 머리말

II. 국명·지명으로서의 황룡

III. 전승·상징으로서의 황룡

IV. 맺음말

## I. 머리말

고구려는 가장 널리 알려진 국호이지만 각종 문헌자료에는 고려(高麗)·고려(高驪)·구려(句麗)·고구려(高句驪)·하구려(下句麗)·예맥(濊貊)·박(狛) 등 여러 가지 표기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돌궐 제2제국의 영주 빌게카간과 그 동생 킬테킨을 각각 기린 두 개의 고돌궐비문에 보이는 Bökli 도 고구려를 지칭하는 것”<sup>1)</sup>으로 보이며 ‘당대(唐代) 묘지명에서는 삼한(三韓)·구종(九種)·현토(玄菟)·요(遼)·동이(東夷)·요갈(遼曷)·진한(辰韓) 등 많은 별칭이 사용되고 있음’<sup>2)</sup>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표기 이외에도 북위 효문제가 보낸 대고구려조서(對高句麗詔書)에는 ‘황룡’이라는 표현이 있어 주목된다. ‘황룡’은 광개토태왕비와 문무왕릉비에도 등장한다. 전자가 고구려를 가리킨다면, 후자는 상서로움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공식적인 국호가 아닌 별칭으로서 이러한 표기는 타자(他者)의 대고구려인식(對高句麗認識)을 반영하고 있다. 주지하듯, ‘하구려(下句麗)’란 왕망(王莽)이 고구려를 낮추어 표현한 것<sup>3)</sup>이고 백제 개로왕이 472년 북위 헌문제에게 보낸 표문<sup>4)</sup> 가운데에는 ‘시랑(豺狼)’·‘추류(醜類)’·‘장사(長蛇)’처럼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을 써가며 고구려를 멸칭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고구려에 대한 백제의 적대적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고구려를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 가운데 ‘황룡’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보려 한다. 각종 국내외 자료에는 국명이나 지명으로서 ‘황룡’의 용례가 보인다.<sup>5)</sup> 먼저 기록상에 등장하는 ‘황룡’의 용례를

1) 노태돈, 「高句麗 渤海人과 內陸아시아 주민과의 交渉에 관한 一考察」, 『대동문화연구』 제23집(1989);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사계절, 1999), 534-535쪽.

2) 최진열, 『발해국호연구』(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78-91쪽.

3) 『三國志』 卷30 東夷傳. “莽大悅 布告天下 更名高句麗爲下句麗.”

4) 『魏書』 卷100 百濟傳.

5) 문헌자료 이외에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황룡’이 보인다. 여기서는 문헌 자료에 한정해 살펴본 관계로 고분벽화에 보이는 황룡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하였다. 고분벽화에 보이는 ‘황룡’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왕의 상징으로서 무덤 주인의 신분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최택선, 「고구려 사신도무덤의 등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3, 1987, 23쪽; 최택선, 「고구려사신도무덤의 주인공문제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8-1, 1988, 23-24쪽)하거나 ‘五行신앙과 관련해 四神에 오행의 중심을 상징하는 신수를 더하여 五神으로 완성시키는 존재’(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

국내의 자료로 나누어 정리한 뒤,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이어 ‘황룡’에 나타난 타자의 대고구려인식의 일면을 살펴보겠다.

## II. 국명·지명으로서의 황룡

‘황룡’의 용례와 관련한 사전적인 해석을 살펴보면 대략 일곱 가지 정도가 확인된다. 이를 열거해보면 ① 황색 용, ② 수(隋)나라 때의 병함(兵艦) 이름, ③ 전한(前漢) 및 오(吳)나라의 연호(年號), ④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의 하나인 북연(北燕)을 가리키는 국명, ⑤ 요(遼)나라 때 두었던 부명(府名), ⑥ 명(明)나라 때 요동(遼東) 사람 이름 ⑦ 마쓰다이라 요리히로(松平頼寛)의 호(號) 등이다.<sup>6)</sup> 여기서 검토대상이 될 만한 것은 ④·⑤ 정도이다. 먼저 국명으로 보이는 사료를 제시해보았으며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였다.

- a-① “12년(435) 봄 정월 [...] 계유일에 황룡국주(黃龍國主)인 풍홍(馮弘)을 연왕(燕王)으로 책봉하였다.”<sup>7)</sup>
- ② (탁발) 도(濼)가 서쪽으로는 농우(隴右)를 평정하고 동쪽으로는 황룡(黃龍)을 멸하였다. 해동(海東)의 여러 나라가 함께 조공하였다. [...] 황룡국주가 우리나라(宋)의 정삭(正朔)을 받았다.<sup>8)</sup>
- ③ “이에 앞서 선비(鮮卑) 모용보(慕容寶)가 중산(中山)을 다스렸는데 삭료(索虜)에게 패하여 동쪽의 황룡(黃龍)으로 달아났다. 의희(義熙) 초에 보(寶)의 아우 희(熙)가 그 부하 풍발(馮跋)에게 살해되었다. 跋(跋)은 자립하여 군주가 되었다. 스스로 연왕(燕王)이라고 불렀다. 황룡성(黃龍城)을 다스렸는데 그런 까닭에 황룡국(黃龍國)이라 부른다.”<sup>9)</sup>
- ④ “(원가)15년(438) 여름 4월 황룡국 사신이 (공물을) 바쳤다.”<sup>10)</sup>
- ⑤ “태흥 5년(435) 봄 정월, 홍(弘)이 자주 위(魏)나라의 공격을 받았다. 사자를 건강(建康)에 보내어 칭藩(稱藩)하였으며 송(宋)에 공물을 바쳤다. 계유일,

학교출판부, 2004, 281-283쪽)로 보기도 한다.

6)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卷12(大修館書店, 1968), 980쪽.

7) 『宋書』 卷5 文帝. “十二年 春正月 [...] 癸酉 封黃龍國主馮弘爲燕王.”

8) 『宋書』 卷95 索虜. “燕西定隴右 東滅黃龍 海東諸國 竝遣朝貢 [...] 黃龍國主受我正朔.”

9) 『宋書』 卷97 高句驪國. “先是 鮮卑慕容寶治中山 爲索虜所破東走黃龍 義熙初 寶弟熙爲其下馮跋所殺 跋自立爲主 自號燕王 以其治黃龍城 故謂之黃龍國.”

10) 『建康實錄』 卷12 宋, 太祖文皇帝. “十五年 夏四月黃龍國使使獻.”

송이 홍(弘)을 연왕(燕王)에 봉하였다. 강남(江南)에서는 이를 황룡국이라고 부른다.”<sup>11)</sup>

- ⑥ “문통(文通)이 요동(遼東)에 이르자, 고려(高麗)가 사신을 보내어 위로하며 이르기를 용성왕(龍城王) 풍군(馮君)이 야차(野次)에 이르렀으니 사마(士馬)가 얼마나 노곤한가! 문통이 수치스러움에 화를 내었다.”<sup>12)</sup>
- ⑦ “태시 5년(469) 만민(萬民)이 아들 핑(宏)에게 선위하고 스스로 태상황이라고 하였다. 핑은 연호를 연흥(延興) 원년(元年)이라고 연호를 세웠다. (연흥) 6년에 만민이 죽자, 시호를 헌문황제(獻文皇帝)라고 하였다. 연호를 고쳐 승명(承明) 원년(元年)(476)이라고 하였다. 이 해는 원휘 4년이다. 할머니 풍씨(馮氏)는 황룡인(黃龍人)이다. 나랏일을 보는 데 도움을 주었다.”<sup>13)</sup>
- ⑧ “당시 위(魏)가 자주 황룡을 쳤다. (풍)홍(弘)이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구하였다.”<sup>14)</sup>
- ⑨ “석법용(釋法勇)은 오랑캐 말로, 담무갈(曇無竭)이다. 본래 성(姓)은 이(李)씨이며 유주(幽州) 황룡국 사람이다.”<sup>15)</sup>

위 사료 a에 보이는 황룡(국)은 북연을 가리키고 있다. 북연이 황룡국으로 불리게 된 까닭은 그 치소가 황룡성이기 때문이었다(a-③). 남조 계통의 사서인 『송서(宋書)』·『남제서(南齊書)』뿐만 아니라 북위의 최홍(崔鴻)이 편찬한 『십육국춘추(十六國春秋)』에서도 북연을 황룡국이라고 부른 사실을 전한다. 북위도 북연의 별칭이 황룡국임을 알고 있었다.

이 밖에 주의할 만한 기록이 a-⑥이다. 고구려는 북위 태무제의 공격을 피해 요동으로 건너온 북연왕 풍홍에 대해 ‘용성왕(龍城王) 풍군(馮君)’이라 부르고 있다. 당시 북연의 수도는 용성(龍城), 화룡성(和龍城) 혹은 황룡성(黃龍城) 등으로 불렸다. 여기서 ‘용성왕’이란 용성, 즉 황룡성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의미이므로 고구려도 북연의 별칭으로 황룡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용례를 통해 볼 때, 주변 여러 나라들은 황룡(국)을 북연의 별칭으로 공공연히 쓰고 있었다.

그런데 『문관사림(文館詞林)』에는 북위 효문제가 고구려에 보낸 조서

11) 『十六國春秋』卷99 北燕錄2 馮弘, “太興五年春正月 弘數爲魏所攻 遣使詣建康稱藩 奉貢於宋 癸酉 宋封弘爲燕王 江南謂之黃龍國.”

12) 『魏書』卷97 海夷馮跋 弟文通, “文通至遼東 高麗遣使勞之曰龍城王馮君 爰適野次 士馬勞乎 文通慚怒.”

13) 『南齊書』卷57 魏虜, “泰始五年 萬民禪位子宏 自稱太上皇 宏立號延興元年至六年萬民死 諡獻文皇帝 改號爲承明元年 是歲元徽四年也 祖母馮氏黃龍人 助治國事.”

14) 『南史』卷16 朱脩之, “時魏屢伐黃龍 弘遣使求救.”

15) 『出三藏記集』傳下卷15 法勇法師傳第10, “釋法勇者胡言曇無竭 本姓李氏 幽州黃龍國人也.”

가 한 통 실려 있다. 복위는 문자왕을 책봉하고 고구려 세자의 입조를 요구하였는데 문자왕이 병을 핑계로 종숙(從叔)인 승우(升于)을 대신 보내었다. 이에 효문제가 발끈하여 보낸 것이 이 조서이다. 대체로 문명태후가 죽고 효문제가 친정체제를 구축하며 대외적으로 주변국을 압박하던 492년 7월 이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 b. “문하득황룡표(門下得黃龍表) 경(卿)은 조정(朝廷)의 명(命)을 어기고 종숙(從叔)을 사신(使臣)으로 보냈도다. [...] 경(卿)만 홀로 숙관(宿款)에 어긋나도다. 엄(嚴)한 조서(詔書)를 어기며 앞에서는 숙병(宿病)을 하소연하고 뒤에서는 자식이 어리다는 닳을 하며 망령되게 친척(枝親)을 보내어 동기(同氣)로 머무르니 이는 참을 수 있으나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다. 만약 경의 부자(父子)가 자리를 자세히 살폈다면 응당 친제(親弟)를 보낼 것이며 나아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일 아우가 아프다면 마땅히 경이 옷통을 벗어서라도 대신 왔어야 한다. 지난 두세 가지 일은 조명(朝命)을 어겼으니 장차 어찌하러는가! 옛날 방풍(房風)이 늦게 이르면 하우(夏禹)가 위엄을 드리웠으며 동국(東國)이 꺾경(闕敬)하면 주공(周公)이 친히 수레에 올랐으니 이 어찌 양부(兩夫)에 급급(急急)하여 전쟁을 재촉하는가! [...] 짐으로 하여금 변방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한다면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동우(東隅)로 향하여 천하에 위엄을 떨치고 해금(海金)을 거두어 화하(華夏)에 나눠주고 오랑캐를 붙잡아 중국(中國)에 데려갈 것이다. 창빈(滄濱)에 이르는 넓은 영토에 전복(甸服)의 수많은 아이들을 부려 또한 어찌 상치를 주겠는가! 좋은 방도를 잘 생각하여 뒤늦게 후회하지 말라! [...] 칭짐(稱朕).”<sup>17)</sup>

조서는 첫머리를 ‘문하득황룡표(門下得黃龍表)’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 보이는 ‘황룡’이 어디인지를 두고 고구려로 보거나<sup>18)</sup> 영주 일대로 보는 견해<sup>19)</sup>로 나뉜다. 특히, 후자의 입장에 있는姜維東

16) 김진한, 「文咨王代の 對北魏外交」, 『한국고대사연구』 44(2006), 160쪽.

17) 『文館詞林』 卷664, 後魏孝文帝與高句麗王雲詔一首. “門下得黃龍表 知卿愆悖朝旨 遣從叔隨使 [...] 而卿獨乖宿款 用違嚴勅 前辭身軀 後託子幼 妄遣枝親 仍留同氣 此而可忍 孰不可恕也 若卿父子 審如所許者 應遣親弟 以赴虔責 如令弟復沈瘵 應以卿袒祈體代行 過事二三 竝違朝命 將何以固 昔房風晚至 大禹所以垂威東國闕敬 周公所以親駕 斯豈急急於兩夫 過過於兵甲者哉 [...] 令朕失信藩辟者 尋當振旅東隅 曜殺下土 收海金賚華夏 擁貉隸而給中國 廣疆畿於滄濱 豐僮使於甸服 抑亦何傷乎 其善思良圖 勿胎後悔 [...] 稱朕.”

18) 주보돈, 「『文館詞林』에 보이는 韓國古代史 관련 外交文書」, 『慶北史學』 15(1992), 171쪽, 각주 27.

19) 姜維東, 「『後魏孝文帝與高句麗王雲詔』中所見魏,麗形勢及雙方關係」, 『史學集刊』 2006-6(2006), 72쪽; 시노하라 히로카타, 『高句麗의 國際秩序認識의 成立과 展開』,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139쪽; 박승범, 「『後魏孝文帝與高句麗王雲詔』와 文咨王 즉

은 영주에서 직접 보고한 것으로 당시 영주에 설치된 동이교위(東夷校尉)에서 동북제이(東北諸夷)의 권력이나 고구려사자(高句麗使者)의 입경(入境) 등 전반을 관할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만약 동이교위에서 고구려사신의 표문을 관할하였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은 누구인가? 이와 관련해 490년대 동이교위에 임명되었던 공손수(公孫邃)가 보인다. 그는 청주자사(靑州刺史) 직을 맡고 있었으며 495년에 사망하였다.<sup>20)</sup> 공손수가 영주자사를 겸직하였다는 사료는 보이지 않으므로 청주자사가 동이교위 직을 수행하며 북위조정에 표문을 올린 것이 된다. 그렇다면 표문에는 ‘황룡’이 아닌 ‘문하득청주표(門下得靑州表)’라고 나오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당시 ‘북위의 동이교위는 화룡과 그 북방 시라무렌하 유역 일대를 통어하고 있어<sup>21)</sup> 고구려는 관할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위서』 고구려전에 따르면, “운(雲, 문자왕)이 글을 올려 병이 있음을 핑계하며 종숙인 승우를 보내 사신을 따라 궁궐에 이르니, (효문제가) 엄하게 꾸짖었다<sup>22)</sup>”고 나온다. 문자왕이 효문제에게 표문을 보내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가 굳이 영주까지 가서 먼저 표문을 접수하고 영주에서 다시 표문을 작성하여 올린 뒤, 효문제가 이를 보고 대고구려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 보이는 ‘황룡’은 고구려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다.

앞서 북연을 가리키는 대명사였던 ‘황룡’을 고구려에 적용하였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황룡이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북위가 고구려를 ‘황룡’이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황룡국이란 별칭으로 불리던 북연이 멸망하고 그 나라의 인적·물적 유산이 상당수 고구려로 넘어갔던 사실<sup>23)</sup>과 황룡성 일대에 미치는 고구려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등을 염두에 두고 고구려에 대한

위 초기 고구려-북위 관계], 『한국사연구』 179(2017), 80-81쪽. 시노하라 논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박승범의 논문을 통해 지명으로 보고 있음을 알았다.

20) 『魏書』 卷33, 公孫邃. 북위에서 임명된 동이교위명단에 대한 일람은 아래 논문이 참조된다. 윤용구, 「고대중국의 동이관(東夷觀)과 고구려: 동이교위(東夷校尉)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2005), 67쪽.

21) 윤용구(2005), 위의 논문, 88-93쪽.

22) 『魏書』 卷100 高句麗. “雲上書辭疾 惟遣其從叔升于隨使詣闕 嚴責之.”

23) 『魏書』 卷100 百濟. “又云 臣與高句麗源出夫餘 先世之時 篤崇舊款 其祖釗輕廢隣好 親率士衆 陵踐臣境 臣祖須整旅電邁 應機馳擊 矢石暫交 梟斬削首 自爾已來 莫敢南顧 自馮氏數終 餘燼奔竄 醜類漸盛 遂見陵逼構怨連 禍 三十餘載 財殫力竭 轉自房蹶.”

별칭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남조국가들이 고구려를 황룡(국)으로 부른 사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조서'의 맥락에서 북위가 쓴 황룡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조서에는 '친제(親弟)라도 보낼 것이며 만약 어길 경우, 군사동원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성을 띤 내용을 담고 있다.'<sup>24)</sup> 이는 효문제가 국상(國喪)을 틈타 고구려의 기를 꺾어놓겠다는 의도가 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25)</sup>

북위는 북연의 별칭이 황룡임을 알면서도 고구려의 별칭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북연은 북위의 세자 입조요구에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핑계로 보내지 않았다. 이후 세자 입조문제로 양국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으며 436년 북위의 공격을 받아 북연은 멸망하였다.<sup>26)</sup> 이러한 입조문제가 고구려와 북위 사이에 재연되고 있었다. 당시 고구려는 북연의 사례를 대북위관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전례로 여기고 있었다.<sup>27)</sup> 그렇다면, 효문제가 조서에서 '북연'을 가리키는 대명사였던 '황룡'을 고구려에 덧씌웠던 데는 북연을 거울삼아 조심하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별칭으로서 황룡이 언제까지 쓰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남북조 각 사서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에 소재한 고구려와 관련한 금석문 자료에서는 '황룡'이 어떻게 쓰이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표1은 수당(隋唐)대 고구려 원정에 나선 인물들의 묘지명에 보이는 황룡의 사례들이다. 표1에서 보듯이, 지명으로서 '황룡'의 사례가 대부분이고 '수 양제'나 '상서로운 동물'로서의 경우 등 몇몇 예가 보인다. 따라서 사실상 고구려를 가리키는 용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을 통해 볼 때, 고구려 별칭으로서 황룡은 북위 효문제대 잠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28)</sup>

24) 주보돈(1992), 앞의 논문, 168쪽.

25)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사계절, 1999), 315쪽.

26) 『魏書』 卷97 馮文通.

27) 『魏書』 卷100 高句麗. “穉惑其左右之說 云朝廷昔與馮氏婚姻 未幾而滅其國 殷鑒不遠 宜以方便辭之 穉遂上書 妄稱女死.”

28) 주보돈은 광개토왕비와 신라 문무왕릉비에 보이는 황룡이 고구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5세기 이후에도 고구려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칭호로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주보돈(1992), 앞의 논문, 171쪽 각주 27].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동명왕전승과

표1-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에 보이는 '황룡' 사례<sup>29)</sup>

墓誌銘	내용	작성연도	의미
南安懿公碑	公釋褐隨奮武尉 于時 東夷不賓 阻遼水以爲固 頻擾黃龍之戍 亟侵元菟之城 隋煬帝親御貔貅 以誅梟獍 公壯踰投石	639	지명
桐柏真人茅山華陽觀王先生碑銘	隋後主薄伐元菟 先生扈從黃龍 車駕凱旋 陪還 洛邑 大業十一年	667	수 양제
唐故上騎都尉馬君墓誌銘并序	洎以三韓肆虐 恃玄菟以蜂飛 九種挺妖 阻黃龍 而蟻聚 [...] 辰韓逆 □ □夷肆兇 縱虐玄菟 恃 險黃龍	672	지명
大唐故右驍衛大將軍兼檢校羽林軍贈鎮軍大將軍荊州大都督上柱薛國公阿史那貞公墓誌銘并序	九種以之而震驚 契丹在白狼之東 居黃龍之右	675	지명
大唐故右驍衛大將軍薛國貞公阿史那府君之碑	顯慶五年 詔爲使持節長岑道行軍大總管 辰韓倣 擾 從旆除殘 契丹縱毒 回戈拯亂 剿玄菟之遊魂 覆黃龍之巨孽 亦旣至止 恩賞兼隆	675	지명
大周故銀青光祿大夫行籛州刺史上柱國燕郡開國公屈突府君墓誌銘并序	服小豹而降右渠 明同屈指 涉黃龍而獻凱 刑白 馬而嘯庸 封范陽開國侯	691	지명
故朱府君墓誌銘并序	東屠白鶴之城 玉帳陳謀 北逐黃龍之戍 雖封侯 莫遂		지명
大周故△△將軍行左豹韜衛郎將贈玉鈴衛將軍高公墓誌銘	美惡同依 白狼援絕 黃龍戍稀 李陵長往 溫序思 歸 諒日月之更謝 寄琬琰於泉扉 其四	700	지명
唐故密亳二州刺史贈安州都督鄭公碑	青邱負阻 滄海揚波 乃眷行師 深惟利涉 制命公 爲造船使 赤馬黃龍 萬艘千軸 成之不日 望之如 雲	706	등물
趙靜安墓誌 <sup>30)</sup>	貞觀十八年 從太宗文皇帝門罪東夷 麾戈一舉 三韓粉魄於黃龍 機弭纒張 九種碎身於玄菟		지명

c-① 뒤에 선비(鮮卑) 풍홍(馮弘)이 연왕(燕王)이라고 칭하였으며 황룡성(黃龍城)을 다스렸다. 託跋燾가 이를 쳤다.<sup>31)</sup>

② “천보(天保, 550-559) [...] 4년 쫓아가 황룡(黃龍)에서 거란을 토벌하였다.”<sup>32)</sup>

관련해 황룡이 쓰이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고구려의 별칭으로 '황룡'이 쓰인 사례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구려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칭호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 의도성을 갖고 사용된 특수사례라고 생각한다.

29) 표1은 다음 두 책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고구려연구재단 편,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고구려연구재단, 2005); 광승훈 외,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30) 『全唐文補遺』 第8輯; 최진열(2015), 앞의 책, 81쪽 자료를 재인용하였다.

31) 『宋書』 卷76 朱脩之. “後鮮卑馮弘稱燕王 治黃龍城 託跋燾伐之.”

- ③ “고보녕(高保寧)은 대인(代人)이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무평(武平, 570-576) 말 영주자사(營州刺史)가 되어 황룡에 진수(鎭戍)하였다. 이하(夷夏)가 그 위신(威信)을 무겁게 여겼다. 장차 군대가 업(鄴)에 이르러는데 유주행대(幽州行臺) 반자황(潘子晃)이 황룡의 군사를 불렀다.”<sup>33)</sup>
- ④ “단영(段永)의 자(字)는 영빈(永賓)이다. 그 선조가 요서(遼西) 석성인(石城人)이다. 진(晉)의 유주자사(幽州刺史) 필제(匹磾)의 후예이다. 증조 외(愷)는 위(魏)나라에서 벼슬하여 황룡진장(黃龍鎭將)이 되었다.”<sup>34)</sup>
- ⑤ “상(上)이 표를 살펴보다니 크게 기뻐하며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 (장손)성(晟)에게 차기장군(車騎將軍)을 내리고 황룡도(黃龍道)로 나가게 하였다.”<sup>35)</sup>
- ⑥ “거란의 선조는 고막해(庫莫奚)와 이종(異種)이나 동류(同類)이다. 나란히 모용씨(慕容氏)에게 패하여 함께 송막(松漠) 사이로 달아났다. 그 뒤 점점 커져 황룡의 북쪽 수백리에 살게 되었다.”<sup>36)</sup>
- ⑦ “황룡은 주(州) 치소(治所)이다. 범양현(范陽縣)에 기치(寄治)한다.”<sup>37)</sup>
- ⑧ “실위(室韋)는 거란의 별종(別種)이다. 동호(東胡)의 북변에 있으며 대개 정령(丁零)의 후예이다. 땅은 황룡의 북쪽에 근거한다.”<sup>38)</sup>
- ⑨ 용주(龍州) 황룡부(黃龍府)는 본래 발해(渤海)의 부여부(扶餘府)이다. 태조가 발해를 평정하고 돌아와 이곳에 이르러 죽었는데, 황룡이 보이자 이름을 고쳤다.<sup>39)</sup>
- ⑩ 용주하(隆州下) 이섭군절도사(利涉軍節度使) 옛 부여(扶餘)의 땅이다. 요나라 태조 때 황룡이 나타나자, 마침내 이름을 황룡부라고 하였다.<sup>40)</sup>

사료 c는 지명으로 쓰인 경우이다. c-①-⑧은 중원왕조가 동북방을 정략하는 거점이자, 북방제종족의 위치를 인지하는 기준으로 황룡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연의 수도였던 황룡성은 오늘날 조양시(朝

32) 『北齊書』 卷41 元景安. “天保 […] 四年 從討契丹於黃龍.”

33) 『北齊書』 卷41 高保寧. “高保寧代人也 不知其所從來 武平末 爲營州刺史 鎭黃龍 夷夏 重其威信 周師將至 鄴 幽州行臺潘子晃徵黃龍兵.”

34) 『周書』 卷36 段永. “段永字永賓 其先遼西石城人 晉幽州刺史匹磾之後也 曾祖愷 仕魏 黃龍鎭將.”

35) 『北史』 卷22 長孫道生. “上省表大悅 因召與語 […] 授晟車騎將軍 出黃龍道.”

36) 『隋書』 卷84 契丹. “契丹之先 與庫莫奚異種而同類 竝爲慕容氏所破 俱竄於松漠之間 其後稍大 居黃龍之北數百里.”

37) 『舊唐書』 卷39 地理2 河北道 信州. “黃龍州所治 寄治范陽縣”

38) 『新唐書』 卷219 室韋. “室韋 契丹別種 東胡之北邊 蓋丁零苗裔也 地據黃龍北”

39) 『遼史』 卷38 地理志二 東京道 龍州. “龍州 黃龍府 本渤海扶餘府 太祖平渤海還至此崩 有黃龍見 更名”

40) 『金史』 卷24 地理上 上京路. “隆州下 利涉軍節度使 古扶餘之地 遼太祖時 有黃龍見 遂名黃龍府”

陽市)이다. 조양은 교역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중원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비록 중원왕조의 관할권 아래 있었다 하더라도 거란·해·실위·말갈 등은 이곳을 활동영역으로 삼으면서 중원왕조와 교류를 맺어왔다. 더욱이 돌궐 및 고구려 등 주변국과 중원왕조와의 역관계에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하였다.

c-⑨⑩은 같은 황룡이지만 사료에 보듯이, 발해부여부 일대를 가리키고 있다. 대체로 '926-928년 사이 개명(改名)하였으며, 복치(復置)된 황룡부의 위치는 농안(農安)지역으로 비정된다.'<sup>41)</sup> 이상 지명을 살펴본 결과, '황룡'은 92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복연의 수도였던 '황룡'과 거란 태조가 개명한 '황룡부'로 구분된다.

### III. 전승·상징으로서의 황룡

중국 자료와 별개로 '황룡'에 대한 용례가 국내 자료에서도 일부 보인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d-① "14년, 봄 2월 왕이 관청에 명하여 월성의 동쪽에 새로운 궁(宮)을 지으라고 하였다. 황룡이 그 땅에 나타나자, 왕이 이를 의아하게 여겨 불사(佛寺)로 고치고 황룡(黃龍)이라는 호(號)를 내렸다."<sup>42)</sup>
- ② "3년, 봄 3월, 황룡이 골령(鵲嶺)에 나타났다. 가을 7월, 골령 남쪽에서 상서로운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푸르고 붉었다."<sup>43)</sup>
- ③ 27년(8) 봄 정월 왕의 태자 해명(解明)이 옛 도읍에 있었는데 힘이 있고 용맹함을 좋아하였다. 황룡국왕(黃龍國王)이 이를 듣고 사람을 보내어 강궁(強弓)을 선물로 주었다. 해명이 그 사자(使者) 앞에서 활을 당겨 부러뜨리며 이르기를 "내 힘 때문이 아니라 활이 강하지 않을 뿐이오"라고 하였다. 황룡왕(黃龍王)이 부끄러웠다. 왕이 이를 듣고 노하여 황룡(왕)에게 이르기를 "해명이 자식으로서 불효하니 과인(寡人)을 위해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3월 황룡왕

41) 日野開三郎, 「渤海の夫餘府と契丹の龍州・黃龍府」,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15卷(三一書房, 1991).

42)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眞興王 14年. “春二月 王命所司築新宮於月城東 黃龍見其地 王疑之 改爲佛寺 賜號 曰皇龍.”

43)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 東明聖王 3年. “春三月 黃龍見於鵲嶺 秋七月 慶雲見鵲嶺南 其邑青赤.”

의 사신을 보내어 태자(太子)보기를 청하였는데 태자가 가고자 하였다. 간하는 자가 있어 “지금 이웃나라가 까닭 없이 보기를 청하니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태자가 이르기를, “하늘이 나를 죽이지 않고자 하면 황룡왕(이 나를 어찌하겠소.” 마침내 갔다. 황룡왕이 처음 죽이려고 했는데 대하고 보니 해를 가할 수 없어 예를 갖춰 보내었다.<sup>44)</sup>

- ④ “5년 여름 4월, 왕궁의 문기둥에 벼락이 쳐 황룡이 그 문에서 날아갔다.”<sup>45)</sup>
- ⑤ “용강현(龍岡縣)은 본래 고려의 황룡성이다.[군악(軍岳)이라고도 한다.]”<sup>46)</sup>
- ⑥ “용강현 영(營)은 1인으로 평양도우익병마(平壤道右翼兵馬)를 겸한다. 본래 고려 황룡성이다. 군악이라고도 한다.”<sup>47)</sup>
- ⑦ “본현(本縣)은 옛 황룡국(黃龍國)이다. 고구려(高句麗) 당시에 황룡성(黃龍城)이라고 불렀다. 군악이라고도 한다.”<sup>48)</sup>

e-① 왕이 나무에 다다라 이르기를 “나는 황천(皇天)의 아들이며, 하백(河伯)의 따님을 어머니로 둔 추모왕(鄒牟王)이다. 나를 위해 갈대를 잇고 거북이를 떼오르게 하여라. 소리에 응하여 곧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가 떼오른 뒤 건너갔다. 비류곡(沸流谷) 흘본(忽本)의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 세상의 자리(王位)를 즐기지 않으니, 황룡(黃龍)을 내려보내어 왕을 맞이하였다. 왕(王)은 흘본(忽本)의 동쪽 언덕에서 용머리를 밟고 하늘로 올라갔다.”<sup>49)</sup>

- ② …… “국(國) 신라(新羅) 문무왕릉(文武王陵)의 비(碑)이다. 급손(及殮)인 국학소경(國學少卿) 신하 김(金)□□ 받들어 찬한다. [···] 경진씨(鯨津氏)를 보내어 삼산(三山)의 궐(闕)을 비추고 동쪽으로는 개오(開梧)의 경(境)을 막고 남쪽으로는 □계지(桂之)□와 이웃하고 □로는 황룡을 맞아 주몽(朱蒙)을 태우고 백무(白武)를 이어받아 우리르며……”<sup>50)</sup>

44)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琉璃明王 27·28年. “二十七年 春正月 王太子解明在古都有力而好勇 黃龍國王聞之 遣使以強弓爲贈 解明對其使者 挽而折之曰 非子有力 弓自不勁耳 黃龍王慙 王聞之怒 告黃龍曰 解明爲子不孝 請爲寡人誅之 三月 黃龍王遣使 請太子相見 太子欲行 人有諫者曰 今鄰國無故請見 其意不可測也 太子曰 天之不欲殺我 黃龍王其如何 遂行 黃龍王始謀殺之 及見不敢加害 禮送之.”

45)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古爾王 5年. “夏四月 震王宮門柱 黃龍自其門飛出.”

46) 『高麗史』 卷58 地理3 安北大都護府. “龍岡縣 本高麗黃龍城[一云軍岳].”

47) 『世宗實錄』 地理志 平安道 平壤府 龍岡縣. “龍岡縣 令一人 兼平壤道右翼兵馬 本高麗黃龍城 一名軍岳.”

48) 『輿地圖書』 平安道 龍岡 遺置沿革. “本縣古黃龍國 高句麗時稱黃龍城 一云軍岳.”

49) 한국국학진흥원·청명문화재단, 『韓國金石文集成』 (1)-高句麗1廣開土王碑 (한국국학진흥원, 2002) 「廣開土王碑」.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爲我連葭浮龜應聲 卽爲連葭浮龜然後造渡 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 不樂世位 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置履龍眞昇天.”

50)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 1992, 文武王陵碑. “國新羅文武王陵之碑 及殮國學少卿臣金□□奉 教撰 [···] 派鯨津氏 映三山之闕 東拒開梧之境 南鄰□桂之□□ 接黃龍駕 朱蒙承白武仰.”

국내 자료에 보이는 황룡 관련 기록은 문헌 자료(d)와 금석문 자료(e)로 나누어볼 수 있다. d-①②④ 사례는 고구려·백제·신라 모두에 보이며 상서로움의 상징으로서 나타난다. 한편, 주목되는 사료가 d-③으로 유리왕 태자 해명과 황룡국왕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다루고 있다. 유리왕 27년은 서기 8년이며 전한(前漢)이 멸망하고 신(新)이 건국되는 시점이다. 이때 등장하는 황룡국은 고구려와 인접한 강국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고려사(高麗史)』(d-⑤)에서는 “본래 고려의 황룡성이다”라고 기록하였다. 18세기 중반 영조대 전국 각 군현의 읍지를 모아 편찬한 『여지도서(輿地圖書)』(d-⑦)에서는 용강현에 황룡국이 존재하였으며 고구려가 황룡성으로 칭하였다고 나온다. 황룡국과 관련한 이야기는 민간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1909년 5월 1일자에 실린 ‘경고아룡강동포(敬告我龍岡同胞)’라는 논설<sup>51)</sup>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f. “惟 我龍岡은 西京 溟江 以南에 枕在호야 東西는 一百三十里오 南北은 五十里인데 一條龍이 海岸을 向호야 舉頭호과 恰似호故로 龍岡의 名稱이 有호고 郡西의 龍頭山과 郡南의 靑龍川은 流峙의 形勝을 모호며 古鮮于諒의 所都黃龍國도 卽 此地라.”

이곳 용강지역은 선우량(鮮于諒)이 세운 황룡국이었다고 한다. 선우씨(鮮于氏)는 기자의 후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1623년에는 기자의 후손 선우식(鮮于寔)을 내세워 승의전의 제전을 잇도록 청하기도 하였다.<sup>52)</sup> 이와 관련해 1625년 이정구(李廷龜)가 지은 승인전비(崇仁殿碑)에 따르면, 마한(馬韓) 말(末) 후손 3인 중 한명인 양(諒)이 용강(龍岡)에 있는 오석산(烏石山)으로 들어가 선우씨로 세계(世系)가 이어졌으며 그 먼 후손인 식(寔)이 승의전에서 기자(箕子)제사를 받들게 되었다고 전한다.<sup>53)</sup> 결국 마한의 후손 중 한 명인 양에 의해 황룡국이 건국되었으며

51) 『西北學會月報』 12號, 1909년 5월 1일, ‘敬告我龍岡同胞(필자: 栢軒生)’

52) 『光海君日記』 46卷 3年(1623) 癸亥 10月 14日(庚辰). “平安監司 崔瓘 馳啓曰 箕子之後 鮮于寔 特令該曹 援據古經 繼絕於千百載之後 啓箕壤士民之心 實合朝家崇報之典 命下禮曹議 回啓曰 祖宗朝所未遑之典 遽爲設立 事極重大 以鮮于寔 依崇義殿 例稱號與否 議大臣則以爲自古積歲曠墜之典 至後世而始舉者多矣 依崇義殿 例施行 允合盛世之典 傳曰 依議.”

53) 『朝鮮金石總覽』 崇仁殿碑. “箕子之後傳四十一而至準 爲衛滿所逐 馬韓末 有孱孫三人 曰 親其後稱韓氏 曰平爲奇氏 曰諒入龍岡烏石山 以傳鮮于世系 [...] 洪武間 有鮮于景者 爲中領別將 其七代孫寔自泰川來居殿側 今十年請以寔主箕子祀.”

이는 선우씨로 세계가 이어져 기자의 후손을 자처하게 되었다. 문제는 기자조선·마한·황룡국을 단일한 세계로 이어졌다고 인식하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의 매개고리로 주목할 점은 “고려 중기의 기록들이 예외 없이, 준(準)이 ‘한지(韓地)’에 세운 나라를 마한이라고 단정<sup>54)</sup>하고 있는 것<sup>55)</sup>이다. 그리고 마한과 황룡국은 다시 기자를 매개로 하나로 이어졌다. 물론 ‘마한의 멸망과 황룡국의 관계는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으므로 서로 관계가 없다.’<sup>56)</sup>

이와 함께 유리왕대 천도한 곳은 국내성으로 그 인접한 나라였던 황룡국은 용강지역에 위치했던 황룡국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d-⑤는 고구려 때 용강이 황룡성이었음을 지적하였고 이후 자료들은 모두 이를 따르고 있다. 여기서 문헌 자료에 실린 ‘황룡국’이지만 그 위치를 전혀 달리하는 동명이국(同名二國)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물론 황룡국이 두 곳에 존재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원화된 인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즉,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삼국사기』 단계에서 인식한 ‘황룡국’은 『고려사』 단계에서는 용강지역의 ‘황룡성(혹은 황룡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단계에 이르면 『삼국사기』 유리왕대 황룡국 관련 기록이 용강현 고적조<sup>57)</sup>에 실림으로써 동일화된다. 이는 ‘황룡국’이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평양 일대에 전해져오는 기자전승과 뒤섞여 용강지역의 ‘황룡국’으로 단일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고대금석문 자료에서는 ‘황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검토해보자. 현재 한국고대금석문 가운데 ‘황룡’이 쓰인 것으로는 광개토왕비와 문무왕릉비 두 점이 있다. 광개토왕비(e-①)에서 확인되는 황룡은 상서로움을 지닌 사자(使者)로 등장하여 동명왕을 저승으로 맞이하고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왕이 승하하자 용산(龍山)에 장사 지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sup>58)</sup> 용산이라는 지명과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54) 『三國遺事』卷1 紀異 第一 馬韓. “魏志云 魏滿擊朝鮮 朝鮮王準率宮人左右 越海而南至韓地 開國號馬韓.”

55) 천관우, 『古朝鮮史·三韓史研究』(일조각, 1989), 144쪽.

56)金子定一(1934), 앞의 논문, 52쪽.

57) 『新增東國輿地勝覽』卷52 平安道 龍岡縣. “建置沿革 古黃龍國爲高句麗所并 高麗稱黃龍城 一云軍岳.”

58)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 東明聖王 19年. “秋九月 王升遐 時年四十歲 葬龍山 號東明聖王.”

여기 등장하는 황룡은 고구려의 신성성을 더해주는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sup>59)</sup>

문무왕릉비(e-②)에 보이는 황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금서룡(今西龍)은 본비에 언급된 네 나라는 모두 실재하지 않는 공명(空名)이지만 그중 황룡국은 고구려 해명태자 전설 속에서 한 강국으로 전해져 오늘날에는 기자후예의 나라로 불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sup>60)</sup> 이영호는 황룡국이 엄연히 있었던 나라로 유리명왕의 태자 해명과 분쟁을 남기고 있는 고구려 인근의 황룡국으로 이해하였다.<sup>61)</sup> 서영대는 고구려의 동명왕 전승과 관련지어 ‘황룡’을 파악하였다.<sup>62)</sup> 비문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황룡은 직접적으로 고구려의 별칭으로 쓰였다고 보다는 동명왕 전승과 관련해 상서로움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라인들은 신라 사방(四方)을 가리키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동명왕 전승을 가진 고구려가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무왕릉비는 신문왕에 의해 682년 무렵 세워졌다.<sup>63)</sup> 이 비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신라에 대한 찬미(讚美)·김씨(金氏) 내력(來歷)·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및 문무왕(文武王)의 사적(事蹟)·백제평정(百濟平定)·유언(遺言)과 장사(葬事)·명(銘) 등으로 이루어졌다.<sup>64)</sup> 이 비문에서 주의되는 점은 ‘신라의 유래를 화관(火官)[염제신농씨(炎帝神農氏)]에서 찾고 나아가 김씨 연원을 한무제로부터 김성(金姓)을 받은 김일제(金日磾)와 연결시켜 인식한 것이다. 이는 중국적 천하관을 받아들여 중국과의 일체감을 강조함으로써 신라를 소중화(小中華)로 인식하려는 바람을 반영한 것이다.’<sup>65)</sup>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기록을 검토할 때, 비문에 언급된 네 나라는 신라를 부각시키는 틀러리로 그 의미가 격하된다. 아울러 동명왕 전승에서 갖는 황룡의 신성성을 고려한다면 신라의 위치는 더욱

59) 최근李大龍은 광개토태왕비에 등장하는 황룡을 漢나라 및 그 군현의 지방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黃龍負升天’이란 추모왕이 왕망의 장군 엄우의 유언에 죽은 것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李大龍, 「黃龍與高句麗早期歷史」, 『民族歷史研究』 2015-1(2015).

60) 今西龍, 「新羅文武王陵碑に就きて」, 『新羅史研究』(近澤書店, 1933), 504쪽.

61) 이영호, 「新羅文武王陵碑의 再檢討」, 『歷史教育論集』 8(1986), 61-62쪽.

62) 서영대, 「《三國史記》와 原始敎敎」, 『歷史學報』 105(1985), 25쪽.

63) 김창호, 「文武王陵碑에 보이는 新羅人의 祖上認識」, 『韓國史研究』 53(1986), 19쪽 각주 8.

64) 今西龍(1933), 앞의 논문, 503쪽.

65) 전덕재, 「新羅의 對外認識과 天下觀」, 『역사문화연구』 20(2004), 223-224쪽.

격상될 것이다. 굳이 신라가 황룡이 포함된 동명왕전승을 끌어들이고 구려를 표현한 까닭은 이런 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국내외 자료 속에서 국명 및 지명으로 쓰인 ‘황룡’의 용례를 찾아 검토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자료에서 국명으로 쓰인 황룡은 북연과 고구려를 가리키는 두 가지 사례가 있었다. 북연이 황룡국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 치소가 황룡성이기 때문이다. 북연의 별칭이 황룡이었음은 남북조뿐만 아니라 고구려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 밖에 북위 효문제가 대고구려조서에서 고구려를 가리켜 황룡으로 부른 예가 있었다. 북위는 입조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던 고구려에게 북연을 거울삼아 조심하라는 경고의 의미에서 ‘황룡’이라고 불렀다. 고구려 별칭으로서 ‘황룡’의 사례는 더 이상 확인된 바가 없어 한시적으로 사용된 듯하다.

둘째, 중국 자료 가운데 지명으로 쓰인 ‘황룡’은 92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북연의 수도였던 ‘황룡(조양시)’과 거란 태조가 발해부여부를 개명한 ‘황룡부(농안 일대)’로 구분된다.

셋째, 국내 자료에 보이는 황룡(국)은 고구려 인근에 있었던 황룡국을 가리키고 있다. 『삼국사기』 단계에서 고구려와 인접한 나라로 등장하는 ‘황룡국’은 『고려사』 단계에서는 용강지역의 ‘황룡성(혹은 황룡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단계에 이르면 유리왕대 황룡국 관련 기록이 용강현 고적조에 실림으로써 동일화된다. 이는 ‘황룡국’이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평양 일대에 전해져오는 기자전승과 맞물려 착종과정을 거쳐 용강지역의 ‘황룡국’으로 단일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넷째, 상서로움의 상징으로서 등장하는 경우이다. 광개토왕비와 문무왕릉비에 보이는 황룡은 동명왕 전승과 관련해 나타났다. 특히, 문무왕릉비에서 신라인들은 신라 사방을 가리키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동명왕 전승과 관련하여 인식하였으며 비문의 전체적인 성격과 문맥 속에서 황룡이 갖는 상징성을 함께 고려할 때, 신라를 부각시키는 요소로 등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상 국내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황룡에 대해서는 국내와 국외 인식이 서로 달랐으며 고구려 스스로 ‘황룡(국)’이라고 부른 경우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고구려 별칭으로서 ‘황룡’은 타자가 인식한 결과물이었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光海君日記』, 『三國志』, 『魏書』, 『宋書』, 『南齊書』, 『北齊書』, 『建康實錄』, 『十六國春秋』, 『南史』, 『北史』, 『出三藏記集』, 『文館詞林』, 『全唐文補遺』, 『周書』, 『隋書』, 『舊唐書』, 『新唐書』, 『遼史』, 『金史』, 『西北學會月報』, 『朝鮮金石總覽』

### 2. 단행본

고구려연구재단 편,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2005.

박승훈 외,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노대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천관우, 『古朝鮮史·三韓史研究』. 일조각, 1989.

최진열, 『발해국호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한국국학진흥원·청명문화재단, 『韓國金石文集成』(1)-高句麗廣開土王碑. 한국국학진흥원, 2002.

今西龍, 『新羅史研究』. 京城: 近澤書店, 1933.

日野開三郎,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15卷. 東京: 三一書房, 1991.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 京城: 朝鮮總督府, 1919.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卷12. 東京: 大修館書店, 1968.

### 3. 논문

김진한, 「文咨王代の 對北魏外交」. 『한국고대사연구』 44, 2006, 155-193쪽.

김창호, 「文武王陵碑에 보이는 新羅人의 祖上認識」. 『韓國史研究』 53, 1986, 17-36쪽.

박승범, 「『後魏孝文帝與高句麗王雲詔』와 文咨王 즉위 초기 고구려-북위 관계」. 『한국사연구』 179, 2017, 73-107쪽.

서영대, 「『三國史記』와 原始宗教」. 『歷史學報』 105, 1985, 1-33쪽.

윤용구, 「고대중국의 동이관(東夷觀)과 고구려: 동이교위(東夷校尉)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2005, 61-100쪽.

이영호, 「新羅 文武王陵碑의 再檢討」. 『歷史教育論集』 8, 1986, 37-75쪽.

전덕재, 「新羅의 對外認識과 天下觀」. 『역사문화연구』 20, 2004, 203-247쪽.

주보돈, 「《文館詞林》에 보이는 韓國古代史 관련 外交文書」. 『慶北史學』 15, 1992, 159-172쪽.

최택선, 「고구려 사신도무덤의 등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3, 1987.  
\_\_\_\_\_, 「고구려 사신도무덤의 주인공문제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8-1, 1988.

金子定一, 「箕子朝鮮·馬韓·黃龍國其他」. 『文教の朝鮮』 103號, 1934.

姜維東, 「《後魏孝文帝與高句麗王雲詔》中所見魏,麗形勢及雙方關係」. 『史學集刊』 2006-6, 2006, 68-80쪽.

李大龍, 「黃龍與高句麗早期歷史」. 『民族歷史研究』 2015-1, 2015, 1-8쪽.

## 국 문 초 록

고구려는 가장 널리 알려진 국호이지만 별칭으로서 ‘황룡’이 보인다. 공식적인 국호가 아닌 별칭으로서 이러한 표기는 타자의 대고구려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국내의 자료에 나오는 ‘황룡’의 용례를 정리한 뒤,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중국 자료에서 국명으로 쓰인 황룡은 북연과 고구려를 가리키는 두 가지 사례가 있었다. 북연이 황룡국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 치소가 황룡성이기 때문이다. 북연의 별칭으로서 황룡은 남북조뿐만 아니라 고구려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 밖에 북위가 고구려를 가리켜 황룡으로 부른 예가 있었다. 북위는 입조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던 고구려에게 북연을 거울삼아 조심하라는 경고의 의미에서 ‘황룡’이라고 불렀다.

중국 자료 가운데 지명으로 쓰인 ‘황룡’은 92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북연의 수도였던 ‘황룡(조양시)’과 거란 태조가 발해부여부를 개명한 ‘황룡부(농안 일대)’로 구분된다.

국내 자료에 보이는 황룡(국)은 고구려 인근에 있었던 황룡국을 가리키고 있다. 『삼국사기』 단계에서 고구려와 인접한 나라로 등장하는 ‘황룡국’은 『고려사』 단계에서는 용강지역의 ‘황룡성(혹은 황룡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단계에 이르면 유리왕대 황룡국 관련 기록이 용강현 고적조에 실림으로써 동일화된다. 이는 ‘황룡국’이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평양 일대에 전해져오는 기자전승과 맞물려 착종과정을 거쳐 용강지역의 ‘황룡국’으로 단일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황룡은 상서로움의 상징으로서 등장하였다. 광개토왕비와 문무왕릉비에 보이는 황룡은 동명왕 전승과 관련해 나타났다. 특히, 문무왕릉비에서 신라인들은 신라 사방을 가리키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동명왕 전승과 관련하여 인식하였으며 비문의 전체적인 성격과 문맥 속에서 황룡이 갖는 상징성을 함께 고려할 때, 신라를 부각시키는 요소로 등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투고일** 2017. 12. 18.

**심사일** 2018. 2. 6.

**게재 확정일** 2018. 2. 26.

**주제어(keyword)** 고구려(高句麗, Goguryeo), 북연(北燕, the Northern Yan), 북위(北魏, the Northern Wei), 황룡(黃龍, yellow dragon), 별칭(other name)

## Abstracts

### Review on the ‘Yellow Dragon(黃龍)’ as an Epithet for Goguryeo (高句麗)

**Kim, Jin-han**

Goguryeo is one of the most widely known names of Korean kingdoms but Goguryeo was known by a number of different epithets. Yellow dragon(黃龍) was one of them. This epithet reflects other nations' perception of Goguryeo.

In Chinese sources there were two instances in which the yellow dragon was used to name countries: Northern Yan(北燕) and Goguryeo. Northern Yan was called the Yellow Dragon State because its capital was the Yellow Dragon Castle(黃龍城). This epithet was widely known not only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南北朝) but also in Goguryeo.

Aside from this instance, there was another instance in which the yellow dragon was used by the Northern Wei(北魏) to name Goguryeo. The Northern Wei used this epithet as a warning to Goguryeo to make an example of Northern Yan(北燕) because there was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the matter of having a Goguryeo prince present at the Northern Wei royal court.

According to Korean sources, the Yellow Dragon State refers to a kingdom neighboring Goguryeo. Also, in the Kwanggaetowang epitaph(廣開土王碑) and Munmuwang epitaph(文武王碑), the yellow dragon is suggested as an auspicious symbol in relation to the myth of King Tongmyong(東明王神話).